[UCI]I804:24011-200000263868

2013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와 '기쁨' 표현의 인지 의미론적 접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은 진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와 ‘기쁨’ 표현의 인지 의미론적 접근

Cognitive Semantics Approach to 'Anger' and 'Happiness' Expressions in Korean and English Picture Books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은 진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와 ‘기쁨’ 표현의 인지 의미론적 접근

지도교수 최 영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은 진

서은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남근 인

심사위원 전남대학교 연구원 나익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

1.2 분석 기준과 방법 ····· 2

Ⅱ. 이론적 배경 ····· 5

2.1 인지의미론과 감정 ····· 5

2.2 은유와 환유 ····· 6

Ⅲ.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의 언어 표현 양상····· 9

3.1 '화'의 언어 표현 양상····· 9

3.1.1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언어 표현····· 9

3.1.2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언어 표현····· 12

3.1.3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 표현의 비교····· 14

3.2 '기쁨'의 언어 표현 양상····· 16

3.2.1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언어 표현····· 17

3.2.2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언어 표현····· 20

3.2.3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표현의 비교····· 23

Ⅳ.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의 효율적 번역 방안····· 25

4.1 화에 대한 감정 언어 번역····· 25

4.1.1 화의 직설적 표현에 대한 번역 ····· 25
4.1.2 화의 은유 표현에 대한 번역 ····· 26
4.1.3 화의 환유 표현에 대한 번역 ····· 27
4.2 기쁨에 대한 감정 언어 번역 ····· 28
4.2.1 기쁨의 직설적 표현에 대한 번역 ····· 29
4.2.2 기쁨의 은유 표현에 대한 번역 ····· 30
4.2.3 기쁨의 환유 표현에 대한 번역 ····· 31
Ⅴ. 맺음말 ····· 33
참 고 문 헌 ····· 36

표 목차

<표 1> 한국어 도서 목록 ····· 2
<표 2> 영어 도서 목록 ····· 3
<표 3> ‘화’ 감정의 직설적 표현 비교 ····· 15
<표 4> ‘화’ 감정의 은유적 표현 비교 ····· 15
<표 5> ‘화’ 감정의 환유적 표현 비교 ····· 15
<표 6> ‘기쁨’ 감정의 직설적 표현 비교 ····· 23
<표 7> ‘기쁨’ 감정의 환유적 표현 비교 ····· 23
<표 8> 감정 표현 분석 결과 ····· 33

그림 목차

<그림 1> 환유와 은유 관계 ····· 6

ABSTRACT

Cognitive Semantics Approach to 'Anger' and 'Happiness' Expressions in Korean and English Picture Books

Eunjin Seo
Advisor : Youngju Choi,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e experience many kinds of feelings such as anger, happiness, and sadness while we function in the world and interact with events around us. When we have a feeling, our bodies react to it and we express our emotions with bodily gestur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motion and bodily re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picture books.

In the paper, emotional expressions categorized as anger and happiness were examined in English and Korean picture books. The literal, metaphorical, and metonymic expressions of the two feelings were compared. It was observed that English picture books expressed emotions through physical external reaction while Korean picture books showed emotions through physical internal reaction. Culturally, Koreans do not seem to show their feelings explicitly. Based on the finding, the paper propose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shown in emotional expressions should be reflected when English picture books are translated into Korean.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화, 슬픔, 기쁨, 두려움, 사랑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몸은 내적·외적 반응을 보인다. 또한 신체 기관들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은 감정을 신체기관의 반응과 관련지어 표현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화' 감정을 '가슴이 부글부글 괸다' '속에서 열불이 콱콱 난다' '내장이 뒤집힌다' 등의 표현으로 묘사한다.

인지언어학에서 감정의 분석은 언어는 우리의 일상 체험에 의해 사용되고, 이성과 의미는 우리의 신체화된 체험에서 발생한다 (Lakoff, 1987). 그러므로 인지언어학에서 감정의 분석은 언어 사용의 본질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반영한 감정 표현이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들은 성인들보다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들고,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느낀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유아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느끼는 즉시 특정한 행동으로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성인 감정 표현보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유아의 감정 표현을 분석해보았다. 그리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을 통해 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2011년 추천한 만4세부터 만7세의 도서 중에서 감정 표현이 드러난 그림책을 선정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했다. 선정된 한국어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에서 묘사된 감정언어 표현을 분석하였다. 임지룡의 『말하는 몸』에서 제시한 동양권의 기본 감정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과

Johnson-Laird & Oatley (1992)가 제시한 영어권에서의 기본 감정 (happiness/joy, desire/ love, sadness, anger, fear, disgust/hate) 중에서 '화'와 '기쁨'의 감정에 대한 언어 표현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언어 표현의 특징을 비교하여,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번역을 제시하였다.

1.2 분석 대상 및 기준, 방법

1.2.1 분석대상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2011년 만4세부터 만7세의 추천도서로 제시한 한국어 그림책 65권과 영어 그림책 50권 중에서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53권의 한국어 그림책과 31권의 영어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다음 <표1> <표2>는 선정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 목록이다.

번호	작품명	번호	작품명
1	강아지똥	28	순이와 어린 동생
2	개구쟁이 ㄱ ㄴ ㄷ	29	시리동동 거미동동
3	고양이	30	심부름 말
4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31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5	무지개	32	아주아주 큰 고구마
6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3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7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34	양배추 소년
8	그건 내 조끼야	35	예방주사 무섭지 않아!
9	기차 ㄱ ㄴ ㄷ	36	오소리네 집 꽃밭
10	길 아저씨 손 아저씨	37	우리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11	새둥지를 이고 다니는 사자 임금님	38	우리할아버지가 꼭 나만 했을 때
12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39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13	노란 풍선	40	웅고와 분홍돌고래
14	노래하는 볼돼지	41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15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42	소리치자 가나다
16	구름빵	43	잃어버린 줄 알았어
17	둥!	44	준치 가시
18	따르릉 따르릉	45	해치와 괴물 사형제
19	똥벼락	46	지하철 바다
20	뛰어라 메뚜기	47	헤어드레서 민지
21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48	지하철을 타고서
22	마법에 걸린 병	49	집 나가자 꿀꿀꿀
23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50	채소밭 잔치
24	길로길로 가다가	51	친구랑 싸웠어!
25	새색시	52	태극1장
26	석수장이 아들	53	토끼의 소원
27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		

<표1 한국어 도서 목록>

번호	작 품 명	원 제
1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	The tiger who came to tea
2	개구쟁이 해리! 목욕은 싫어요.	Harry the dirty dog
3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Mr. Gumpy's outing
4	고함쟁이 엄마	Schreimutter
5	곰 사냥을 떠나자	We're going on a bear hunt
6	괴물들이 사는 나라	Where the wild things are
7	기계들은 무슨 일을 하지?	Machines at work
8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I will never not ever eat a tomato
9	낮잠 자는 집	Napping house
10	내 사랑 뿌뿌	Owen
11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The story of the little mole: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
12	눈 오는 날	The snowy day
13	마녀 위니	Winnie the witch
14	세 강도	The three robbers
15	시간 상자	Flotsam
16	소피가 화나면-정말, 정말 화나면...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
17	안녕 빠이빠이 창문	The hello, goodbye window
18	알과 암탉	L'ceuf et la poule
19	앨피가 일등이에요	Alfie gets in first
20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Oi, get off our train
21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드가...	Joseph had a little overcoat
22	월요일 아침에	One Monday morning
23	으뜸 헤엄이	Swimmy
24	작은 기차	Two little trains
25	조각이불	The quilt
26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Doctor de Soto
27	코를 킁킁!	The happy day
28	크릭터	Crictor
29	티치	Titch
30	파랑이와 노랑이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31	피터의 여자	Peter's chair

<표2 영어 도서 목록>

1.2.2 분석 기준과 방법

<표1> <표2>에서 제시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와 ‘기쁨’ 감정을 중심으로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을 이해하고,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확장해 나갔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인지의미론과 감정

인지언어학 (Cognitive Linguistics)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언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언어와 몸, 마음,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언어 이론이다 (임지룡, 2008). 한마디로, 인지언어학은 마음과 몸, 언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Gibb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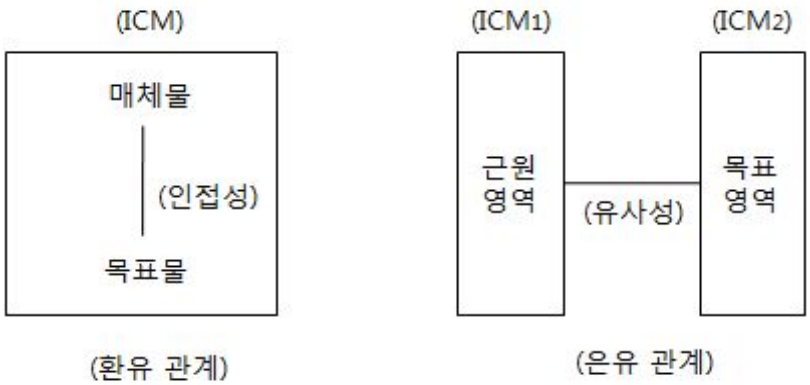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언어학의 고유의 관심사로서 인지심리학과 변형 생성언어학과 같은 여러 이론들이 의미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인지언어학은 언어와 인간, 문화 속에서 의미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데, 1980년대 후반 '마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감정 (emotion)'을 의미 연구의 중심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는 '감정학 (emotionology)'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Athanasiadou & Tabakowska, 1998). 언어를 사용 주체의 몸과 마음, 문화 속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인지언어학은 감정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체험 요소로 여기고 언어와 감정 사이를 밝혀주는 가장 유용한 이론이 되었다 (Taylor, 2002).

감정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은 감정의 문제가 '체험주의 (experientialism)'를 지향하는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어울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체험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와 의미는 일상의 신체화된 체험에서 나온다 (Lakoff, 1987; Johnson, 1987; Ungerer & Schmid, 1996; Lakoff & Johnson, 1980). 즉, 우리가 추상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신체 생리적 반응과 체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은유와 환유

전통적으로 은유와 환유는 수사학이나 시에서 표현의 기법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은유와 환유를 개념적 은유 (conceptual metaphor)와 개념적 환유 (conceptual metony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해석한다. 이는 은유와 환유를 단순히 수사기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개념화하는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전략으로 은유와 환유가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즉, 인간이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인지하는 전략은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유사성과 인접성에 바탕을 둔 경험에 있다는 것이다. 은유는 두 개의 다른 영역에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개념화되고, 환유는 동일한 틀 안에 있는 두 실체 사이의 인접성을 통해 개념화 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Kövecses, 2002).



[그림 1 환유와 은유 관계]

개념적 은유는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에 의해서 인지하는 개념화 장치”로 정의된다 (Lee, 2001; Kövecses, 2002). 이 경우에, 개념적 은유는 두 가지 개념적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영역은 [그림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영역 (targer domain)’이라 칭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을 ‘근원영역 (source domain)’이라 한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감정 표현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를 살펴보자. 예문 (1)은 '음식물'이라는 근원영역 '맛을 보다' 또는 '맛보지 못하다'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목표영역인 추상적인 '사랑'을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개념적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을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영역을 개념화시키는 인지 전략이며, 은유적 표현은 개념적 은유가 언어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 과연 형식의 옷과 머리에는 이가 많이 끓었다. 이러함으로 어린 형식은 동무의 **사랑조차 맛보지 못하였다.** (이광수. *무정*.)

둘째, 개념적 환유도 역시 은유와 마찬가지로 인지언어학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환유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영역 안에서 두 개의 다른 개념적 실체가 있는데 한 개념적 실체, 즉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 즉 '목표 (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과정이다 (Kövecses & Radden, 1998). 이러한 인지과정은 감정 표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 내부·외부의 생리적 반응을 하나의 개념적 실체(매체)로 보고, 이 매체를 통해서 다른 개념적 실체(목표)가 되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개념적 환유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반응의 결과로 원인이 되는 감정을 대신한다. 특정한 신체 생리적 반응이 그 감정을 대표한다는 것은 다음 (2)와 (3)에서 알 수 있다. 몸에서 열이 발산되고 혈압이 상승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화를 표현하고 있다. (2)에서는 '피가 머리로 치뻗어 오르다'와 같은 신체 내부적 반응과 관련된 매체물을 통해서 목표물 '화'를 표현하고 있다. (3)에서는 '얼굴 위에 열이 오르다'와 같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의 매체물을 통해 목표물 '화'를 표현하고 있다. '화' 감정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에 의해 구조화 되고 개념화됨을 알 수 있다. 결국,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매체)에 통해 또 하나의 실체(목표)를 접근해가는 인지 과정이다.

(2) 순간, 김범우는 **피가 머리로 치뻗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조정래. *태백산맥2.*)

(3) 한실댁의 늘어진 **얼굴 위에 열이 오른다**.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전통 수사학의 비유법에서의 환유와 은유와는 구별이 되고 개념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림 1]에서와 같은 사상 과정(mapping proces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실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서 나타난 '화'와 '기쁨'의 감정을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다음 장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Ⅲ. 한국어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 표현의 양상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표현을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서론부에서 제시한 서양권과 동양권의 기본 감정 중에 화와 기쁨 감정을 분석하여, 각각의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 표현의 특성들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3.1 '화'의 언어 표현 양상

'화 (anger)'는 기본 감정에 속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감정과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생리적 반응에 대한 신체적 표현은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임지룡, 1999).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화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몸과 관련된 표현들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한국어 문화권에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또는 '부아가 나다'와 같은 '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임지룡, 2006). 영어 그림책을 통하여 영어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화의 표현은 어떠한지 한국어 문화권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와 영어그림책에서 '화'를 묘사한 대목을 중심으로 화에 대한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을 검토하기로 한다.

3.1.1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언어 표현 양상

한국어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화'의 언어적 표현에는 '분하다'의 직설적 표현과 '화나다' '심통 나다' '속상하다'와 같은 은유표현, '눈물이 나다(울다)' '쫓아가다' '소리치다' '무서운 얼굴로 말하다' '으름장을 놓다' '투덜거리다' '입을 벌리다' '입을 삐쭉거리다' 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있다.

3.1.1.1 화의 직설적 표현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화’의 직설적 표현으로 ‘분하다’가 나타났다.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직설적 표현은 다음 (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a. “어유, **분하다**! 정말 나쁜 원숭이야.” (예방주사 무섭지 않아)
b. **분했다.** (친구랑 싸웠어)

3.1.1.2 화의 은유적 표현

은유는 근원영역의 체험을 바탕으로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은유적 표현은 ‘화나다’ ‘심통 나다’ ‘속상하다’가 있다. 목표영역인 화는 싹과 음식물을 근원영역으로 개념화하여 나타난다. ‘화’와 ‘심통’은 근원영역인 ‘싹’과 돋아날 수 있다는 유사성을 공유하며, 이것은 다음 (5)와 (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7)에서 ‘속상하다’는 마치 음식물이 상하는 것처럼 ‘속’이 상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음식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목표영역인 화를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a. 강아지 똥이 **화가 나서** 대들 듯이 물었어요. (강아지 똥)
b. 이 말은 들은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c. 엄마는 정말 **화가 나서,** 도깨비의 목을 잡아끌고 빨래 통에 풍덩 집어 던졌습니다.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d. 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어.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e. 엄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나가자 꿀꿀꿀)
f. 방울토마토는 **화가 났어요.** (채소밭 잔치)

(6) 정우는 잔뜩 **심통이 났습니다**.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7) 아이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

3.1.1.3 화의 환유적 표현

'화'가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는 '화'의 환유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환유적 표현으로는 '눈물이 나다(울다)' '쫓아가다' '소리치다' '무서운 얼굴로 말하다' '투덜거리다' '입을 벌리다' '입을 삐쭉거리다'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8)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다. 화가 난 결과로 신체에서 일어난 증상으로 '눈물이 나오다' '울음이 터지다' '울다'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9)는 화가 났을 때 목소리가 변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다.

(8) a.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b. 강아지 똥은 그만 "으앙!"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강아지 똥)
c. 그러더니 그만 참았던 **울음이 왕!하고 터집니다.** (지하철을 타고서)
d. "으앙!" **울었다.**
e. 엄마한테 매달려 **엉엉 울었다.**
f. 울어도 울어도 자꾸자꾸 **눈물이 났다.**
g. 나는 **눈물이 났다.** (친구랑 싸웠어)

(9) a. 그것을 본 엄마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b. 그러자 김 부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똥 벼락)

c. 난 너무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어.**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d. 해치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벼락같이 소리쳤지.**

(해치와 괴물 사형제)

e. 할머니도 큰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10)~(12)는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이나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다. (10)은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11)은 화가 났을 때 얼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12)는 화로 인해 발생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유적 표현이다.

(10) a. 산도깨비도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렸습니다.** (똥 벼락)

b. 엄마 말씀에 지원이 **입술이 삐죽삐죽합니다.** (지하철을 타고서)

(11) "안 돼, 그건!" 칸의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12) "이따 저녁 찌개 할 북어를. 노마 요 녀석 허는 장난이."하고 **마루를 구르며 쫓아 내려옵니다.** (고양이)

3.1.2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언어 표현 양상

영어 그림책에서 화의 언어적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angry'와 'furious'를 사용한 직설적 표현과 화를 화산으로 여기는 은유적 표현, 'roar' 'cry' 'scream'과 같이 화가 나면 목소리가 변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과 'kick' 'run'과 같이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이 있다.

3.1.2.1 화의 직설적 표현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화가 났을 때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furious’와 ’angry’가 있다. 다음 (13)과 (14)는 이러한 표현을 예시한다.

(13) This time, Winnie was **furious.** (*Winnie the witch*)

(14) Oh, is Sophie ever **angry** now! (*When Sophie gets angry...*)

3.1.2.2 화의 은유적 표현

그림책에서 ‘화’ 감정은 화산 (volcano)을 근원영역에 두고 목표영역 ‘화’를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것은 (15)에서 볼 수 있는데 화는 폭발할 수 있는 개체로, 그리고 화를 담고 있는 사람은 화산으로 인지되고 있다.

(15) **Sophie is a volcano**, ready to **explode**. (*When Sophie gets angry...*)

3.1.2.2 화의 환유적 표현

영어 그림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의 환유적 표현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인 ‘roar’ ‘cry’ ‘scream’ 등과 화날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 반응인 ‘kick’ ‘run’ ‘send to somewhere without any food’ ‘make believe someone doesn't hear’ 등이 있다.

(16)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으로서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실례에서 ‘roar’ ‘cry’ ‘scream’은 목소리의 음조가 커지는 증상 즉 ‘소리침’을 나타낸다.

(16) a. She **roars a red, red roar.**

b. Then, for a little while, she **cries.**

c. She **screams.** (*When Sophie gets angry...*)

다음 (17)~(20)은 행동 묘사를 통한 화 감정의 환유적 표현이다. 화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kick' 'run' 'send to bed without eating anything' 'make believe someone doesn't hear' 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7)은 화로 인해 발생한 '발로 차다 (kick)'의 행동을 묘사하고, (18)은 화가 나서 달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묘사한다. (19)는 늦게 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장난만 치는 주인공에게 화가 난 엄마의 행동으로서 '방에 가두어 버린다 (send to bed without eating anything)'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은 주인공이 화가 나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못들은 척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낸다.

(17) She **kicks.** (*When Sophie gets angry...*)

(18) a. She **runs and runs and runs until she can't run anymore.**

(*When Sophie gets angry..*)

b. **"Let's run away, Willie," he said.** (*Peter's chair*)

(19) so he was **sent to bed without eating anything.**

(*Where the wild things are*)

(20) **Peter and Willie made believe they didn't hear.** (*Peter's chair*)

3.1.3 한국어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 표현의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를 묘사하는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환유적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비교하고 분석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분하다	◆ angry ◆ furious

<표3 화 감정의 직설적 표현 비교>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화나다 ◆ 심통 나다 ◆ 속상하다	◆ be a volcano ◆ explode

<표4 화 감정의 은유적 표현 비교>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눈물이 나다 (울다) ◆ 소리치다 (으름장을 놓다) ◆ 쫓아가다 ◆ 무서운 얼굴로 말하다 ◆ 입술이 삐죽삐죽하다	◆ cry ◆ scream / roar ◆ run ◆ kick ◆ sent to somewhere without any food ◆ make believe someone does not hear

<표5 화 감정의 환유 표현 비교>

위의 <표3>에서 보듯이 화 감정의 직설적 표현은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서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그

림책에서는 목표 영역인 '화'를 개념화하는 데 싹을 근원영역으로 사용하는 은유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화는 싹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는 화는 사람의 가슴속에 내재 되어 있는 감정인 화를 지면 아래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지면 위로 나오는 (식물의)싹으로 간주하는 한국인의 사고 과정의 한 반영이다. [화는 음식물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는 음식물이 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속이 상하다의 표현으로 화를 드러내지 않는 한국인의 특징을 반영한다. 반면, 영어 그림책에서는 화산(volcano)을 근원영역으로 사용하여 목표영역인 화 감정의 표현을 개념화하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화는 폭발하는 속성을 가진 개체로 간주되고, 화를 내는 사람은 화산 자체로 여겨진다.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화는 주로 마음속에 담아두는 감정이고 영어 문화권에서는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표출하는 감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위의 <표5>에서 '울다/ cry, 소리치다/ scream, roar'의 환유적 표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의 특징이다.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적극적으로 화를 나타내기 보다는 '입술을 삐쭉하다'와 '속상하다'처럼 화를 감추는 경향이 보인다. 반면, 영어 그림책에서는 화가 풀릴 때까지 달리거나, 발로 차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에 가두거나, 들어도 못들은 척하는 행동과 같이 화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서 뚜렷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은유와 환유 표현을 통해서는 영어 그림책이 한국어 그림책보다 화의 감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표현되고 있다.

3.2 '기쁨'의 언어 표현 양상

'기쁨'은 '슬픔'의 감정과 대립이 되는 기본 감정에 속한다. '기쁨'은 긍정적 측면의 감정이고, 이 감정과 대립이 되는 '슬픔'은 부정적 측면의 감정이 되는데, 이런 대립적인 면은 어린이의 언어습득 과정에 있어 이른 시기에 인지된다 (Krzeszowski, 1990).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서 이러한 기쁨 감정에 대한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을 분석하였다. '기쁘다'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그림책을 통해 기

쁨의 감정들이 한국어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3.2.1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언어 표현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등을 사용한 직설적 표현과 '신나다'의 은유적 표현이 있다. 또한 '노래하다' '펄쩍 뛰다'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한 환유적 표현과 '어깨를 들썩이다' '속이 후련하다' '웃다' 등의 신체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있다.

3.2.1.1 기쁨의 직설적 표현

기쁨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에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쁨의 직설적 감정 표현들이 나타나는 상황은 (21)~(24)에서 보듯이 다양하다.

'좋다'는 흔히 '사랑하다 (love)'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21)에서 보듯이 '좋다'는 또한 기쁨의 직설적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22)에서는 '기쁘다'가 (23)에서는 '행복하다'가 기쁨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24)에서는 '기쁘다'와 '즐겁다'가 함께 사용하여 기쁨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1) a. 아이 **좋아**! 이제 같이 놀 수 있어요. (노란풍선)
b.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도깨비를 빨아버린...)
c.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d. 기분 **좋은** 새해 아침, 할아버지께서 새해 선물로 받으신 <어흥 꿀단지>의 꿀맛을 보려고 은빈이와 은진이는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마법에 걸린 병)

(22) a. 모두들 굉장히 **기뻐하며** 이영차, 이영차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b. 아이가 없는 악어 아줌마, 아저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가자 꿀꿀꿀)

c. 그러나 노마는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고양이)

d. 그래도 돌쇠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똥 벼락)

(23) a. 보라색 꿈속에서 아이는 **행복합니다.** (무지개)

b. 아주 아주 **행복하게요.** (길 아저씨 손 아저씨)

(24)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뛰어라 메뚜기)

3.2.1.2 기쁨의 은유적 표현

기쁨 감정의 은유적 표현으로 '신나다'가 한국어 그림책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식물의 싹을 기쁨의 근원 영역으로 사용하여 기쁨 감정을 개념화하는 [기쁨은 싹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다음 (25)와 (26)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6)에서는 '재밌다'와 '신나다'를 같이 사용하여 기쁨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25) a. 둘이서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어' 길 한 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알이 떨어져 있었어요.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b. 동그랗게 만두피를 만들고 그 안에 만두소를 넣어 모양을 다듬고 다 만든 것을 머리에 이고 나르며 모두 **신이 났습니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c. 선물 꾸러미 앞에서 모두들 **신이 났어요.** (마법에 걸린 병)

d. 볼돼지는 **신이 났어요.**

e. 관객들도 **신나게** 따라 했고요. (노래하는 볼 돼지)

(26) 얼음이 꽁꽁 언 연못에 구멍을 뚫고 물고기를 낚으면,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거든요.**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3.2.1.3 기쁨의 환유적 표현

기쁠 때 '노래하다' '한달음에 달려 나가다' 등과 같은 행동 반응을 묘사하는 환유적 표현과 '웃다/ 싱글벙글하다' '어깨를 들썩이다' '속이 후련하다' 등과 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묘사하는 환유적 표현이 있다. 기쁨의 환유적 표현 중에서 아래 (27)과 (28)은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다.

(27a)에서는 새의 감정 표현으로 '즐겁게 짹짹거린다'는 '노래 부르다'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27b)에서는 기쁜 감정을 노래하는 행동과 함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깨가 들썩이다'를 함께 사용하여 기쁨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에서는 돌쇠 아버지가 곡식을 가져올 기대감으로 가득 찬 김 부자가 마당에 무언가 '퍽'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타난 한달음에 마당으로 달려 나가는 행동을 통해 김 부자의 기쁜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27) a. 아기새들은 지오지오의 머리 위에서 **짹짹거리며 즐겁게 지저귑니다.**
(새둥지를 이고 다니는 사자 임금님)

b. **어깨가 들썩여지고 노래가 술술 나왔습니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28) 김 부자는 **한달음에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똥 벼락)

기쁨의 환유적 표현은 (29)와 (30)에서 보듯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외부·내부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9)는 기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외부적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서 '웃다'로 표현되고 있다. (30)에서는 기쁠 때 신체 내

부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속이 후련하다’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 표현은 빨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가 더러운 빨래를 빨고 난 후의 느낌을 ‘속이 후련하다’의 신체 내부적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29) a. 손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 아저씨를 향해 **웃었어요.** (길 아저씨 손 아저씨)

b. 함지박을 나와 할머니는 **환히 웃었습니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c.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지개)

d. 영이가 생긋생긋 **웃었습니다.** (순이와 어린 동생)

e. 오소리 아줌마와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산비탈에 핀 꽃들도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꽃 밭)

f. 앞치마만 두르면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합니다**. 자, 이제 시작 입니다. (손 큰 할머니의 만두...)

(30) “아, 빨래를 널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도깨비를 빨아버린...)

3.2.2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언어 표현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쁨 감정에 대해 ‘happy’나 ‘glad’ 와 같은 직설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wag one's tail’ ‘laugh’ ‘dance’ ‘hugged and kissed’ 등과 같이 기쁨의 감정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묘사하는 환유적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만 은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3.2.2.1 기쁨의 직설적 표현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쁠 때의 감정을 ‘glad’ ‘happy’ ‘satisfy’ ‘delight’ ‘relieve’ 등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기쁨의 직설적 감정 표현은 다음 (31)~(35)에서 사용

되고 있다.

(31)은 'glad'를 사용한 기쁨의 직설적 표현이고 (32)는 'happy'를 사용한 기쁨의 직설적 표현이다. (32a)에서는 커다란 물고기가 친구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린 후 혼자 남은 swimmy가 바다 속을 헤매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생기는 기쁜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b)에서는 잃어버린 그들의 아기를 찾게 된 부모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다. (33)은 'delight'를 사용해 기쁨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34)는 'satisfy'와 'happily'를 사용해 기쁨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에서는 두더지 머리 위에 똥 싼 범인이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난 후 기쁨 감정을 'relieve'를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a. Everyone is **glad** she's home. (*When Sophie gets angry...*)

b. I'm **glad** because I know we're going home,

(*The hello, goodbye window*)

(32) a. Swimmy was **happy** again. (*Swimmy*)

b. Mama blue and papa blue were very **happy** to see their little blue.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c. **Happily** they hugged each other and hugged each other.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33) Tiffany was **delighted** to meet the robbers. (*The three robbers*)

(34) **Satisfied** at last, the little mole disappeared **happily** into his hole underground. (*Who knew it was none...*)

(35) **He was very relieved** that it hadn't been the cow who had done something on his head. (*Who knew it was none...*)

3.2.2.2 기쁨의 은유적 표현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쁨 감정의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지 못한 다른 영어 그림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2.2.3 기쁨의 환유적 표현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쁠 때의 감정을 'wag one's tail' 'laugh' 'dance' 'hugged and kissed'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묘사한 환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기쁠 때 나타나는 의미 있는 행동 반응은 (36)~(39)에서 보듯이 다양하다.

(36)에서는 기쁨의 감정으로 서로 안아주는 행동이 나타나며, (37)에서는 강아지의 기쁨 감정을 표시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38)에서는 동물들의 기쁨 감정을 웃으며 춤을 추는 행동으로, (39)에서는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엄마 아빠가 아기를 찾은 기쁨을 'hug'와 'kiss'의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hug'와 'kiss'의 행동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기쁨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36) a. Happily **they hugged each other and hugged each other.**
b. They all **hugged each other with joy** and the children played until suppertime.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37) **Harry wagged his tail** and was very, very happy. (*Harry the dirty..*)

(38) **They laugh. They laugh. They dance.** (*The happy day*)

(39) They **hugged and kissed** him.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3.2.3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 표현의 비교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을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영어 그림책에서는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3.1.1과 3.1.2에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직설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기쁨' 감정의 언어적 표현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책에 나타난 기쁜 감정의 직설적 표현과 환유 표현의 비교양상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기쁘다 ◆ 좋다 ◆ 행복하다	◆ glad ◆ delighted ◆ happy (happily) ◆ satisfied ◆ relieved

<표6 기쁨 감정의 직설적 표현비교>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노래하다 ◆ 달려가다 ◆ 웃다 / 싱글벙글하다 ◆ 어깨를 들썩이다 ◆ 속이 후련하다	◆ hug each other ◆ laugh ◆ dance ◆ kiss

<표7 기쁨 감정의 환유 표현비교>

<표6>에서 보듯이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좋다'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 기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 영어 그림책에서는 'happily'와 'satisfy'가 기쁨을 나타내는 직설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표7>에서 보듯이,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쁠 때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

환유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달려 나가다’ ‘싱글벙글하다’ ‘어깨를 들썩이다’ ‘노래 부르다’의 표현은 마치 기쁨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의 감정 표현이이다. ‘달려 나가다’ 표현의 경우, 욕심 많고 심술쟁이 김 부자의 평소의 모습은 엄한 모습의 양반이지만 도깨비가 마당에 선물을 두고 다녀갔을 거라는 기쁨의 행동을 묘사한 대목인데 이 때 보여주는 김 부자의 행동은 다 자고 있는 밤에 혼자 몰래 마당으로 달려 나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깨를 들썩이다’와 ‘싱글벙글하다’ ‘노래 부르다’ 표현의 경우에도, 앞치마만 두르면 혼자 싱글벙글해 하시는 손 큰 할머니가 만두소를 완성한 후 만두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 부르는 할머니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뽀뽀를 하거나 포옹하는 적극적인 감정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쁨을 드러내지 않는 한국인의 정서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기쁜 감정들이 영어 그림책보다 소극적이고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표현하여 내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쁨 감정은 한국어 그림책보다 영어 그림책에서 다양한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뽀뽀를 하거나 포옹하는 등, 타인과 기쁨 감정을 함께 나누는 행동 묘사를 통한 환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의 효율적 번역 방안

앞 장에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 표현의 기본 감정 중에서 기쁨과 화의 감정을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밝혀 보았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언어 표현들과 그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어 문화권의 감정 표현의 특성을 파악하여,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 표현의 번역을 한국인 정서에 맞게 번역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어 그림책 원서에 나타난 감정언어 표현들이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 소개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들의 특성을 반영시킨 은유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을 활용한 번역을 제시할 것이다.

4.1 화에 대한 감정 언어 번역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 감정의 특징은 환유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눈물이 나다' '입술이 삐죽삐죽 하다' '속상하다'처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영어 그림책은 'cry' 'scream' 'run' 'kick'과 같은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은유적 표현으로는 [화는 싹이다]로 개념화 시킨 한국어 그림책의 표현과 [화는 화산이다]로 개념화 시킨 영어 그림책에서의 표현이 있다.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화가 돋아나게 되어 '화나다'로 표현되고, 영어 그림책에서는 '화' 감정 그대로를 폭발시키는 '화산이다'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영어 그림책의 한국어로의 번역에서 유용한 방안을 제안해보고, 실제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을 소개할 것이다.

4.1.1 화의 직설적 표현에 대한 번역

영어 그림책에 나타나고 있는 화의 직설적 표현으로 'angry'와 'furious'가 있다. 다음 (40)과 (41)에 나타난 이 두 단어는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분하다'와 같은 직설적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 번역서에서 'furious'와 'angry'는 [화는 싹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발현인 '화나다'로 번역되고 있다.

(40a)는 'furious'를 사용한 영어 그림책의 내용이다. (40b)는 영어의 직설적 표현을 한국어의 직설적 표현인 '분하다'로 번역한 사례이다. (40c)는 실제 번역서의 사례로서 영어의 직설적 표현을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으로 옮기고 있다.

(40) a. This time, Winnie was **furious.** (*Winnie the witch*)
b. 이번에는, 마녀 위니가 **분했어요**.
c. 이번에는, 마녀 위니가 **몹시 화가 났어요.**

다음 (41a)는 'angry'를 사용한 영어 그림책의 실례이다. 영어의 직설적 표현을 한국어의 직설적 표현으로의 번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하다'를 사용하여 (41b)와 같은 번역을 제시해 보았다. (41c)는 (41a)에 대한 실제 번역서의 번역문으로서 영어의 직설적 표현을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인 '화나다'에 짝지어 은유적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41) a. Oh, is Sophie ever **angry** now! (*When Sophie gets angry...*)
b. 오 저런, 소피는 지금처럼 **분한** 적이 없습니다.
c. 오 저런, 소피는 지금처럼 **화난** 적이 없습니다.

(40)과 (41)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그림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화 감정의 직설적 표현인 'angry'와 'furious'를 은유적 표현인 '화나다'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은유적인 방식의 번역이 한국인의 정서상 더 쉽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4.1.2 화의 은유적 표현에 대한 번역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목표영역인 화에 대해 싹을 근원영역으로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영어 그림책에서는 화산을 근원영역으로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 그림책에서는 화가 'be a volcano'처럼 폭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감정이 표출되는 반면,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화를 표현할 때 '화나다'라고 한다.

(42a)는 영어 그림책에 나오는 [화는 화산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발현인 화의 은유적 표현이다. (42b)는 실제 번역서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42a)의 은유적 표현은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는 싹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예시하는 표현과는 다르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의 은유적 표현에 대응하는 번역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실제 번역서의 번역을 소개하였고, 이 번역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

(42) a. **Sophie is a volcano**, ready to explode.

(*When Sophie gets angry...*)

b. 소피는 폭발할 준비가 된 화산과 같아요.

4.1.3 화의 환유 표현에 대한 번역

영어 그림책에서는 'run'과 'kick'처럼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묘사된 환유적 표현과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거나, 화가 난 행동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에 가두어 버린다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등의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이 있다. 반면,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화의 적극적 표현으로 '무서운 얼굴로 말하다'가 있고, '입술이 삐죽삐죽하다'와 '속상하다'와 같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있다. 이처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 감정의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한 환유적 표현을 번역할 때,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우리 몸과 관련지어 다소 소극적 화의 표현이 되도록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43a)와 (44a)는 행동을 통해 화를 드러내는 환유적 표현이다. (43b)는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신체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을 첨가시킨 번역의 사례이고, (43c)는 실제 번역서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44b)는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는 음식물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예시하는 사례이고, (44c)는 실제 번역서의 사례이다. 이처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행동을 통한 환유 표현을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나 있는 신체 반응과 관련된 환유 표현과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인 정서에 맞는 번역이 되도록 제시해 보았다.

(43) a. So he was **sent to bed without eating anything.**

(*Where the wild things are*)

b. 엄마는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저녁밥도 안 주고, 나를 내방으로 보냈어.**

c.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 버렸대**.

(44) a. **Peter and Willie made believe they didn't hear.** (*Peter's chair*)

b. **속이 상한** 피터와 윌리는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c. 피터와 윌리는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4.2 기쁨에 대한 감정 언어 번역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은 환유적 표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어깨를 들썩이다' '달려 나가다' '싱글벙글하다'의 기쁨 감정 표현은 감정을 느낀 주체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3장에서 언급하였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은 '속이 후련하다'와 같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한국인 정서에 맞다. 반면, 영어 그림책에 나타나 기쁨은 '포옹하다 (hug each other)' 'laugh (웃다)' 'dance (춤추다)' '뽀뽀하다 (kiss)'처럼 기쁨

감정을 함께 나누는 행동으로 표출하여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영어 그림책에서는 기쁨의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 그림책에 나오는 [기쁨은 싹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발현 사례인, '신나다'는 마음속에 내재된 기쁨의 표현을 반영하여 번역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직설적 표현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가 있고,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직설적 표현은 'glad' 'happy' 'satisfy' 'delight' 'relieve' 'happily'가 있다. 영어 그림책에 나오는 기쁨을 묘사하는 직설적 표현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직설적 표현 중에서 'happy' 'satisfy' 'relieve'는 상황에 따라 기쁨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고, 일반적인 의미인 '행복하다' '만족하다' '안도하다'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의 번역을 제안해 보고, 실제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4.2.1 기쁨의 직설적 표현에 대한 번역

영어 그림책에는 기쁨의 직설 표현으로 'glad' 'happy' 'satisfy' 'delight' 'relieve' 'happily'가 나왔다. 이러한 표현 중에서 'satisfy' 'relieve' 'happily'에 대한 한국어의 번역을 제안하고, 실제 한국어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45a)는 'satisfied'와 'happily'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보통 영어 'satisfy'는 '만족하다'의 뜻으로, 'happily'는 '행복하게'의 뜻으로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쁨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것은 실제 번역서의 번역인 다음 (45b)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45) a. **Satisfied** at last, the little mole disappeared **happily** into his hole underground.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

b.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

(46a)는 직설적 표현인 'relieve'를 사용하여 기쁨 감정을 표현한 경우이다. 영어 'relieve'는 '안도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쁨 감정'과 관련된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실제 번역서의 번역 사례인 (46b)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46) a. **He was very relieved** that it hadn't been the cow who had done something on his head.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

b.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요**.

4.2.2 기쁨의 은유적 표현에 대한 번역

영어 그림책에 기쁨의 은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은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기쁨은 싹이다]의 발현 사례인 은유적 표현 '신나다'를 이용하여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두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번역이 될 수 있다.

(47a)는 'happily'를 사용한 기쁨의 직설적 표현이고, (47b)는 영어의 직설적 표현을 한국어의 직설적 표현인 '기분 좋다'로 번역을 해본 사례이다. (47c)는 실제 번역서에서 나타난 사례로서, 영어의 직설적 표현이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 '신나다'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7) a. For a little while they all went along **happily**...

(*Mr. Gumpy's outing*)

b. 얼마나 동안은 모두들 **기분 좋게** 배를 타고 갔는데...

c. 얼마나 동안은 모두들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47)에서 보듯이, 영어의 직설적 표현인 'happily'를 한국어의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한 예문 모두 자연스럽다. 실제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4.2.3 기쁨의 환유 표현에 대한 번역

한국어 그림책에는 신체 내부 반응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주로 나오고, 영어 그림책에는 기쁨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 묘사된 환유적 표현이 주로 나온다.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의 환유적 표현은 'hug' 'dance' 'laugh' 'kiss'와 같이 기쁨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어 그림책에서는 '속이 후련하다'와 같이 기쁨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방식과 '어깨를 들썩이다'와 같은 신체 외부 반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노래하다' '달려 나가다' 등과 같은 표현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주체가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감정 표현이다. 기쁨 감정의 환유 표현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영어 그림책 번역을 제안해 보고, 실제 번역서에 나타난 번역을 소개했다.

(48a)의 기쁨에 대한 적극적 행동 표현이다. 영어 그림책에는 기쁨의 환유적 표현으로 행동을 통한 반응이 주로 나타났지만, 한국어 그림책에는 신체 내부 반응과 관련된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행동을 통한 환유적 표현은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신체 반응과 관련된 표현으로 (48b)와 같이 옮길 수 있다. 이것은 (48c)의 실제 번역서의 사례와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 행동을 통해 표현한 감정을 (48b)와 같이 기쁨 감정을 억제시켜 표현하는 한국인 정서에 맞는 번역이 되도록 제안해 보았다. 다음 (49a)에 나타난 행동 묘사를 통한 환유적 표현은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나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미소를 짓다'의 표현을 첨가하여 (49b)와 같이 한국인의 정서를 포함한 번역을 해본 사례이다. (49c)의 실제 번역서에서는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 '신나다'를 첨가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사고 과정을 포함한 번역문

이다.

(48) a. They **hugged** and **kissed** him.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b. 엄마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파랑이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어.

c. 엄마 아빠는 파랑이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어.

(49) a. **They laugh. They laugh. They dance.** (*The Happy Day*)

b. 모두의 **가슴이 뛰어요.** 모두 웃으며 신나게 춤을 춰요.

c. 모두 웃어요. 모두 웃으며 **신나게** 춤을 춰요.

위의 (48)과 (49)에서 보듯이,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행동 반응의 환유적 표현은 실제 번역서의 사례와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난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환유적 표현을 첨가한 번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은 인지의미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본 감정 중에서 화와 기쁨의 표현들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 두 감정을 묘사한 언어표현들을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환유적 표현으로 나누어 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특징들을 찾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영어 그림책 번역을 제안하였다.

두 문화권에 있어서의 감정 표현의 차이와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의 표현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8>과 같다.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 직설적 표현보다는 환유적 표현 ◆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표출 ◆ 소극적이고 감정을 억제하는 표현	◆ 환유적 표현 보다는 직설적 표현 ◆ 신체 외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표출 ◆ 표현 행동을 통한 적극적 감정 표출

<표8 감정 표현 분석 결과>

한국어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와 ‘기쁨’ 감정 표현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쁨 감정을 표현할 때, 영어 문화권이 한국어 문화권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 한국어에서는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와 같은 직설적 표현 나타났지만, 영어에서는 ‘glad’ ‘delighted’ ‘happy’ ‘satisfied’ ‘relieved’와 같은 다양한 직설적 표현으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났다. 반면, 환유적 표현에서는 한국어 문화권이 영어 문화권보다 다양한 행동과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적극적인 감정의 표현은 아니었다. 한국어 표현에서는 감정의 주체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감정 표현 ‘노래하다’ ‘달려 나가다’ ‘싱글벙글하

다' '어깨를 들썩이다'와 신체 반응과 관련된 '속이 후련하다' 등의 다양한 환유적 표현을 사용한 소극적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반면, 영어 표현에서는 포옹하기, 뽀뽀하기, 춤추기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기쁨 감정에서 영어 그림책은 다양한 직설적 표현과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 그림책은 신체 내부적 반응과 감정의 주체가 아무도 없을 때의 행동 묘사의 환유적 표현을 통해 대체적으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화의 감정을 표현할 때, 한국어 문화권이 영어 문화권보다 억제하는 표현을 한다. 은유적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 그림책에서 화는 내재 되어 있는 감정으로 여기고 화가 가슴속에서 나오는 '화나다'와 음식이 상하는 것을 근원적 영역에 둔 '속이 상하다'로 표현된다. 반면, 영어 그림책에서 화는 폭발하는 것으로 본 '화산이다'로 표현된다. 환유적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 그림책에서 화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무서운 얼굴로 말하다' '입술이 삐죽삐죽하다'와 같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관련지어 표현되지만, 영어 그림책에서 화는 'scream' 'run' 'kick' 'make believe someone does not hear'처럼 화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화 감정에서 한국어 그림책은 신체 반응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는 반면, 영어 그림책은 화를 발산시키고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감정 '화'와 '기쁨'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 표현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들을 번역할 때, 한국어 그림책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들의 정서와 맞는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한국어 그림책은 영어 그림책보다 화와 기쁨 감정을 표현할 때 소극적이고, 적극적 행동을 묘사한 환유적 표현보다는 감정을 억제하는 신체 반응과 마음속에서 일어난 증상과 관련된 환유적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번역으로 제안해 보았다. 이렇게 한국어 문화권의 정서에 맞는 번역을 제시함으로써, 번역서의 감정 언어 표현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번역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을 중심으로 '화'와 '기쁨'에 대한 직설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을 분석한 후 번역의 제안으로 확장해보았다. 만 3세~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라는 데서 오는 유아의 감정 표현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그림책에서 나타난 감정의 직설적 표현과 환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 번역의 제안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김도윤, 최윤실. (2011). 한국어-영어 감정 은유의 개념화 과정 및 한영 번역. *영어영문학21, 24*(3), 99-118.

노양진, 나익주. (2006).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나익주, 조명원. (1995).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나익주. (2003). 한국어에서의 성욕의 은유적 개념화. *담화와 인지, 10*(1), 79-104

나익주. (2000). 사랑의 개념적 은유. 이기동 편저, *인지언어학* (pp. 415-443). 한국문화사.

나익주. (2006).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20*, 91-120

이기동. (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이창봉. (2011). 은유를 통한 행복의 이해. *인간학 연구, 20*, 197-229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 (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89-117.

임지룡. (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임지룡. (2006).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1-19.

임지룡. (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인지과학연구, 41*, 1-31.

임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조찬숙. (2002). *은유와 환유에 의한 신체관련 표현연구: 영어와 우리말의 자료분석 및 개념체계비교*.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지훈. (2008). *국어 신체 관용어의 은유·환유 연구: 신체 기관 관련 관용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thanasiadou, A., & E. Tabakowska. (1998). *Speaking of emotions:*

Conceptualisation and express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Evans, V., & M.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Gibbs, R. W. (1996). What's cognitive about cognitive linguistics. In E. H. Casad (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pp. 27-53).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hnson-Laird, P. N., & K. Oatley. (1992). Basic emotions, rationality, and folk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6*, 201-223.

Kövecses, Z., & G. Radden. (1998). Are there any emotion-specific metaphor? In A. Athanasiadou & E. Tabakowska (Eds.),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pp. 127-151). Berlin: Mouton de Gruyter.

Kövecses, Z. (2002)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zeszowski, T. P. (1990). The axiological aspect of idealized cognitive models. In J. Tomaszcayk & B. Lewandowandowska-Tomaszczyk (Eds.), *Meaning and lexicography* (pp. 135-165).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1990). Invariance hypothesis. *Cognitive Linguistics, 1*, 39-74.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Stanford &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Lee, D. (2001).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Massachusetts & London: The MIT Press.

Taylor, J. R. (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Ullmamm,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Ungerer, F., & H. J. Schmid.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Woo, Su-jung & Lee, jeong-hwa. (2002). Conceptual Metaphors for Happiness in Korean and English: A Cognitive-Culture Study.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8*(2), 1-25

* 예문 발췌 문헌

박경리. (1993). *김약국의 딸들*. 나남.

이광수. (1994). *무정*. 우성.

조정래. (1986). *태백산맥 2*. 한길사.

* 그림책 발췌 문헌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국민사관.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오소리네 집 꽃 밭*. 길벗 어린이.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강아지 똥*. 길벗어린이.

고경숙. *마법에 걸린 병*. 재미마주.

고대영 글, 김영진 그림. *지하철을 타고서*. 길벗어린이.

김영진. *노래하는 볼 돼지*. 길벗 어린이.
김지기 글, 김재홍 그림. *무지개*. 푸른책들
김한민. *웅고와 분홍 돌고래*. 우리교육.
김회경 글, 조혜란 그림. *똥 벼락*. 사계절.
기시다 에리코 글, 나카타니 치요코 그림. *새둥지를 이고 다니는 사자 임금님*. 한림.
다시마 세이죠. *뛰어라 메뚜기*. 보림.
다시마 세이죠. *채소밭 잔치*. 우리교육.
리카가와 리에코.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한림.
박연철.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시공주니어.
시바타 아이코 글, 이토 히데오 그림. *친구랑 싸웠어*. 시공주니어.
사카이 고마코. *노란풍선*. 웅진 주니어.
사토 와키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한림.
쓰쓰이 요리코 글, 하야시 아키코 그림. *순이와 어린 동생*. 한림.
야규 마치코. *집 나가자 꿀꿀꿀*. 웅진주니어.
정하섭 글, 한병호 그림. *해치와 괴물 사형제*. 길벗어린이.
채인선 글, 이억배 그림.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
카도노 에이코 글, 다루이시 마코 그림. *난 병이 난 게 아니야*. 한림.
하이타니 겐지로 글, 초 신타 그림.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양철북
후카미 하루오. *예방주사 무섭지 않아*. 한림.
현덕 글, 이형진 그림. *고양이*. 길벗어린이.
Balerie Thomas. *Winnie the witch*. Oxford University Press.
Ezra Jack Keats. *Peter's chair*. Viking Books.
Gene Zion 글, Margaret Boly Graham 그림. *Harry the dirty dog*. Red Fox Books.
John Mackintosh Burningham. *Mr. Gumpy's outing*. Random House.
Leo Lionni. *Swimmy*. Scholastic.

Leo Lionni.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Scholastic.

Norton Juster Chris Raschka. *The hello, goodbye window*. Disney Press.

Maurice Sendak. *Where the wild things are*. Harper Collins Publisher, Inc.

Molly Bang.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 Scholastic.

Ruth Krauss 글, Marc Simont그림. *The happy day*. Marc Simont.

Werner Holzwarth 글, Wolf Erlbruch 그림. *The story of the little mole: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 Trafalgar Square Books.